

# 국어의 이중주어 및 이중목적어 구문에 대한 고찰 —기능분배 및 화용론적 입장에서—

김 경 학

영 어 영 문 학 과

(1982. 10. 30 접수)

## 〈요 약〉

국어문법에서 이중주어 및 이중목적어 구문에 대한 연구는 많이 논의 되었으나 대체로 통사론적인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본 논문에서는 기능문법적인 면에서 이를 분석해 보고, 나아가 화용론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이/가”와 “을/를”이 중출하는 현상을 통사론적인 면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고, 화용론상의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에 의한 보충 설명이 필요함을 살피 보고자 한다.

## On the Korean Double Subject and Object Construction —Functional and Pragmatic view—

Kim Kyong Hak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Received October 30, 1982)

## 〈Abstract〉

Korean double subject and object constructions have been discussed by many linguists but there is no satisfactory analysis about them. In this paper, they are analyzed according to revised Dik's (1978) Functional Grammar, comparing with previous analyses.

In the process of analysis, pragmatic function (Topic and Focus) proves to be very important factor because Korean morphological form varies according to its context and situation. Therefore Conversational Implicature is postulated to explain the pragmatic function of subject case marking 'i/ka' and object case marking 'il/lil' in Korean double subject and object construction.

## I. 서 론

본 논문에서는 국어 문법에서 이중주어 및 이중목적어 구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어 및 목적어의 중출현상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해 온 학설과 비교해 가며 Dik(1978)의 기능 문법적 분석방법과 그 수정안에서 이를 분석 적용해 보고자 한다. 국어는 문맥과 상황에 따라 상당히 형태가 달라지므로 통사론적인 현상만으로는 만족한 설명을 할 수 없으

운 지적하고 화용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 1장에서는 주격표시어 “는/은”과 “이/가” 가지는 기능을 통사론적인 면에서 보다 화용론적인 면에서 살피 기능문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 기능문법의 분석 방식을 국어에 적용해 보았다. 즉 2장에서는 주어 중출현상에 대해서, 또 3장에서는 목적어 중출현상에 대해 기존 학설을 비판해 가며 기능문법적 방식을 도입하여 그 분석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편 4장에서는 국어의 기능문법적 분석을 적용해 가는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문

제점을 다루어 그 타당성과 수정 및 대안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았다.

## II. 기능문법적 접근

### 1. “는/은”과 “이/가”의 기능

종래에는 “는/은”을 “이/가”와 같이 주어라 나타내는 주격조사라고하여 구문론적인 고찰만 하였으나, 근래 기능문법적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는”은 주제어 및 대조적 강조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며, “이/가”는 순수주어 및 배타적 강조(exclusive focus)를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 a. 철수가 영리하다.

b. 철수는 영리하다.

(1a)의 “철수가”는 이 문장의 주어임이 확실하며, (1b)의 “철수는”은 이 문장의 주어인 동시에 주제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1b)처럼 주어와 주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다.

(2) a. 책이 도서관에 있다.

b. 도서관에 책이 있다.

c. 도서관은 책이 있다.

(3) a. 철수가 영화를 사랑한다.

b. 영화를 철수가 사랑한다.

c. 영화는 철수가 사랑한다.

(2c)의 “도서관은”은 주어가 아니라 주제어라고 볼 수 있으며, (3c)의 “영화는”도 주어와 일치하지 않는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는”과 “이/가”는 주제어와 주어를 나타내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을 보자.

(4) a. 철수는(만, 도) 떠났다.

b. 철수가 떠났다.

(4a)에서 “는”은 “만”, “도”와 같이 화자가 “철수가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화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

나 철수가 떠난 것만은 확신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대조적으로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는”이 지닌 대조적 강조(contrastive focus)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4b)의 “철수가”도 단지 주어를 나타내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 즉 배타적 강조(exclusive focus)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4b)의 문장에서 “철수가”에 강세를 두거나, 혹은 회상하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문장, 즉 총칭성적(generic) 문장일 경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철수가 떠났다는 의미로 배타적 강조(exclusive focus)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sup>

한편 임흥빈(1974)은 “이/가”가 주제어가 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5) a. 작은 고추가 맵다.

b. 인삼이 몸에 좋다.

(5a) 문장의 의미상황을 두가지로 설정하여, 즉 하나는 작은 고추를 먹으면서 진술하는 specific sentence의 경우와, 다른 하나는 먹어본 경험을 토대로 맵다는 것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generic sentence의 경우를 들어, 후자의 의미상황에서는 주격의 “이/가”가 주제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의미상황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제를 나타내는 “는/은”을 선택하여 다음 문장처럼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6) a. 작은 고추는 맵다.

b. 인삼은 몸에 좋다.

오히려 후자의 의미상황 즉 generic sentence도 쓰였을 경우 (5)의 문장처럼 {이/가}를 택한다면 이는 “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작은 고추다”라든지 “몸에 좋은 것은 다른 아닌 인삼이다”라는 의미로 배타적 강조(exclusive focus)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런 전상에 대해 양동휘(1974a: 29)은 Topic과 Focus라는 개념을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특히 국어조사 “는/은”과 “이/가”가 지니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밝

(1) 이 경우 exclusive focus라기 보다 identifying focus가 더 타당할런지 모르겠다. 한편 양동휘(1974: 26)은 exclusive focus는 contrastive focus 보다는 훨씬 identifying focus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Note that the exclusive focus and the identifying focus are similar in that in both cases the speaker is sure about other possibilities to be matched with the presupposition either positively(‘identifying focus’) or negatively(‘exclusive focus’); but in the cases of contrastive focus the speaker is not sure about the other possibilities to be matched with the presupposition in either way. Furthermore, it seems that semantically the identifying focus is more or less a weaker version of the exclusive focus. Indeed in Korean where the exclusive focus and the contrastive focus are specified by distinct particles, the identifying focus is also specified by the particle for the exclusive focus.”

	Unmarked Environments	Marked Environments
Nominative Particle /i/	SUBJECT (a) in 'specific' sentence and (b) unstressed	EXCLUSIVE FOCUS (a) in 'generic' sentence or (b) stressed or (c) both (a) and (b)
Topic Particle/nin/	TOPIC (a) in 'generic' sentence and (b) unstressed and (c) in sentence-initial position	CONTRASTIVE FOCUS (a) in 'specific' sentence or (b) stressed or (c) in non-sentence-initial position or (d) any combination of (a), (b) and (c)

석하고 있다.

위의 도표는 매우 체계적이지요, 시사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가}는 자연스러운 환경인 강제를 받지 않는 specific sentence인 경우에만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외의 환경 즉 generic sentence이거나 강제를 받거나 하는 경우는 배타적 강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또 {는/은}은 강제를 받지 않는 generic sentence의 문두에서 주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외의 환경 즉 강제를 받거나, specific sentence이거나 문두가 아닌 그 외의 자리에서는 대조적 강조(contrastive focus)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7) a. 개는 고양이를 쫓는다.
- b. 개는' 고양이를 쫓는다.
- c. 고양이를 개는 쫓는다.
- d. 어떤 개는 고양이를 쫓고 있다.
- e. 고양이를 어떤 개는' 쫓고 있다.

(7a)는 generic sentence로 “개는”이 주제어이고 (7b, c, d, e)는 그 이외의 환경으로 (7b)는 강제를 받았고, (7c)는 문두의 위치가 아니고, (7d)는 specific sentence이고 (7e)는 여러개의 상황이 담긴 경우로, 모두 대조적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이/가}의 문장을 보자.

- (8) a. 어떤 개가 고양이를 쫓고 있다.
- b. 어떤 개가' 고양이를 쫓고 있다.
- c. 개가 고양이를 쫓는다.
- d. 개가' 고양이를 쫓는다.

(8a)는 자연스러운 환경인 specific sentence로

“개가”는 당연히 주어이며 (8b, c, d)는 무차인스턴 환경으로, (8b)는 강제를 (8c)는 generic sentence로 (8d)는 강제와 generic sentence가 합쳐진 경우로 모두 배타적 강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Dik(1978)의 기능문법적 분석

한편 위에서 언급한 주어, 주제어, 강조 등의 기능적 역할을 어떤 문법적 단위안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Dik(1978: 13~14)의 기능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계의 다른 단계에서의 기능을 두어 문장을 분석하고 있다.

- (1) 의미론적 기능 : 위격(Agent), 목적격(Goal) 등등.
- (2) 통사론적 기능 : 주어, 목적어.
- (3) 화용론적 기능 : Theme과 Tail Topic과 Focus

의미론적 기능은 어떤 문장 서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 용어들의 의미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기능이고, 통사론적 기능은 문법적 요건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어나 목적어이니하는 통사론적 기능을 말하며, 화용론적 기능은 화자의 의도 등의 사소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정보 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9) a. 철수가 개구리를 죽였다.
- b. 개구리를 철수가 죽였다.
- c. 개구리는 철수가 죽였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9c)의 개구리는 주제어일 수도 있고, 대조적 강조의 기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 이에 대해 뒷면엔 주제어로서의 의미

인 (9c)의 분석은 Kuroda(1965)같은 변형문법적 입장에서 본다면 (9a)에서 이동규칙에 의해 목적어인 “개구리”를 앞으로 이동하여 (9b)가 되고 다시 주제와 빈칸의 의해 목적격조사 “물” 대신 주격어를 나타내는 조사 “은”을 대치시켜 (9c)로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대안으로는 Kuno(1973)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듯 하다. 즉 “개구리”라는 주체가 이미 문장을 서술하기에 앞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철수가 개구리를 죽였다”라는 문장을 과자가 서술하는 과정에서 목적어 “개구리”를 주격어 “개구리”에 의해 ‘동인명사주 목적격’에 의해 생략되는 방법이 있다.

(10) (개구리는) (철수가 개구리를 죽였다.)  
Theme  Sentence

이때 Dik(1978: 134)는 이 두가지 방법이 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본어 조사 “wa”가 갖고 있는 function에 대해 Theme과 Topic이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sup>(2)</sup> 두번째 대조적 강조의 의미로서의 (9c)의 분석은 “개구리”를 문장 서술상에서 목적어가 대조적 강조라는 화용론적 기능을 받아 이를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때 국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스러우므로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되는 변형규칙을 지용하지 않고, 있는 표면구조 그대로에서 해석을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처럼 “주격어”를 문장을 서술하기에 앞서 설정하는 방법은 Dik(1978)의 기능문법적 분석방법으로 Theme과 Tail은 문장서술 밖에 위치하는 화용론적 기능이고 Topic과 Focus는 문장서술 안에 위치하는 화용론적 기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11) (x<sub>1</sub>)<sub>Theme</sub> predication, (x<sub>2</sub>)<sub>Tail</sub>

이때 Theme은 문장서술(predication)안에 위치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2) a. That guy, is he a friend of yours?  
 b. That trunk, put it in the car!  
 c. As for the students, they won't be invited.

- (13) a. Is that guy a friend of yours?  
 b. Put that trunk in the car!  
 c. The students won't be invited.

(12)예문의 주제(Theme)는 (13)예문처럼 문장 서술내에서 앞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다음 예문에서 불가능하다.

- (14) a. As for the students, adolescents almost never have any sense.  
 b. As for Paris, the Eiffel Tower is really spectacular.  
 c. As for the Center, well, the less said about so-called 'think tanks', the better.

또 (12)나 (14)에서 앞의 주격어(Theme)을 생략해도 문장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다음의 Tail도 문장서술 밖에 위치하는 것을 다음 예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 (15) a. He is a nice chap, your brother.  
 b. I like John very much, your brother I mean.  
 c. John gave that book to a girl, in the library.

한편 일본어에 대해서도 이런 분석을 도입하였는데 비슷한 구조를 지닌 국어의 다음 문장을 보자.

- (16) a. 코끼리는 코가 길다.  
 b. 어머니는 말이 많다.

(16)의 “코끼리는”과 “어머니는”은 theme으로 보고, 문장서술하기에 앞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코가”와 “말이”는 그 문장의 주어이며 topic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Dik(1978)가 theme으로 본 (16)의 “코끼리는”과 “어머니는”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topic에 해당되고, 구대어 문장 서술(predication)밖에 위치해야 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 그리고 Dik(1978)가 topic으로 본 (16)의 “코가”와 “말이”는 오히려 identifying focus 매지는 exclusive focus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Dik(1978)의 기능문법적 분석방법, 주격어 대치 기능 및 통사적 기능 그리고 화용론적 기능에

(2) Kuno(1972: 296)은 일본어 조사 “Wa”와 “Ga”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 Wa marks either the “theme” or the “contrasted element” of the sentence. The theme must be either anaphoric or generic while there is no such constraint for the contrasted element.

ii) Ga as subject case marker is either for neutral description (as in ‘Oza, ame ga hutte iru.’ ‘Oh, look! It is raining.’) or for exhaustive listing (as in ‘John ga dokusin desu.’ ‘(among those under discussion,) John and only John is single) When the predicate represents a state (but not existence) or a habitual-generic action, only the exhaustive listing interpretation is obtained.

이때 Kuno가 의미하는 theme은 Dik의 topic의 의미에 더 가깝다.

의한 방법을 도입하되 화용론적 기능 중 theme 과 topic 의 구별을 없애서 문장내에 위치하는 topic 의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 문장내에서 반드시 화용론적인 기능인 topic 과 focus 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topicless sentence 나 focusless sentence 도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 Ⅲ. 주어 중출현상의 기능문법적 분석

준고(1981)에서는 이중주어 분석에서 Dik(1978)의 제각에 따라 “는”은 Theme 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중주어 구문에서 제외하였으나 2장에서 “는/은”이아말로 문장내의 Topic 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사임은 삼켰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는/은”도 포함하여 이중주어 구문을 먼저 보고자 한다.

#### 1. 관형격 구분

주어 중출현상에 대해 관형격에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7) a. 철수의 머리가 아프다.
- b. 철수가 머리가 아프다.
- c. 철수는 머리가 아프다.

Shibatani(1977: 214)는 (17b)를 (17a)와 같은 소유격 형식의 문장에서 일종의 변형규칙에 의해 주격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17b)의 “철수가”는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소유격이 주격화된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이 주격화변형은 약간의 의미 차이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의 미 차이란 Kuno(1972)가 말하는 소위 exhaustive listing 으로 강조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sup>(3)</sup> 이는 주격조사 “가”가 반드시 주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중주어문장은 있을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예문을 보자.

- (18) a. 누가 머리가 아프나?
- b. 철수가 머리가 아프다.
- (19) a. 철수가 어디가 아프나?
- b. 철수는 머리가 아프다.

(18b)의 “철수가”는 Shibatani(1977) 분석처럼 강조의 표현을 띠으나 (19b)의 “철수는”은 강조가 아니라 그 문장의 주어이며 Topic 이 되고 강조는 “머

리”에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0) a. 철수가 머리 아프다.
- b. 철수가 머리가 아프다.

(20b)에서는 (18b)와는 달리 “철수가”에 focus 가 오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가”에 focus 가 온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같은 문장이라도 그 쓰이는 용도에 따라 통사적 기능 및 화용론적 기능이 달라질수 있다. 그러므로 Shibatani(1977)의 관계문법(Relational Grammar)에 의한 주격화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수 있다. 한편, Dik(1978)의 기능문법(Functional Grammar)적 분석과 그 수정안에 따르면 (18b)에문에 “머리”라는 용어에 대해 의미론적 기능으로 치격은, 통사론적 기능으로 주어, 설정하고 화용론적 기능으로는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철수가”에 대해서는 위격(agent)이라는 의미론적 기능과 주어(subject)라는 통사론적 기능 및 강조(focus)라는 화용론적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도식으로 표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8b') 아프다 (철수가) (머리)가  
Ag. Sub. Foc. Lo. Sub.

한편 (19b)에문에서는 의미론적 기능과 통사론적 기능은 같으나, 빈말로 “철수는”이라는 용어에 topic 이라는 화용론적 기능을, “머리”라는 용어에 강조라는 화용론적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을 대략 다음과 같이 표시할수 있다.

(19b') 아프다 (철수는) (머리)가  
Ag. Sub. Top. Lo. Sub. Foc.

또 (20b)에문에서도 의미론적 기능 및 통사론적 기능은 앞의 분석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며 화용론적 기능으로서 “머리”에 focus 가 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b') 아프다 (철수가) (머리)가  
v Ag. Sub. Lo. Sub. Foc.

이때 (18b)와 (20b)는 topic 은 없고 focus 만 있는 문장으로 분석하였고 (19b)만 topic 과 focus 가 있는 문장으로 보았다. 이는 (18b)와 (20b)보다는 일반적으로 (19b)와 같은 문장이 더 많이 쓰이고 자연스러움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볼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자.

- (21) a. 영희는 얼굴이 예쁘다.
- b. 누나는 눈이 크다.
- c. 철수는 마음이 악하다.
- d. 코끼리는 코가 길다.

(3) 註 2)의 ii) Ga 설명 참조.

자들은 모두 비분리적 소유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과 같이 보자.

- (22) a. 영치가 얼굴이 예쁘다.
- b. 누나가 눈이 크다.
- c. 철수가 마음이 약하다.
- d. 코끼리가 코가 길다.

(21)에 대해서는 (19b')와 같은 분석을, (22)에 대해서는 (18b')이나 (20b')같은 분석을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3) a. 교실의 창이 깨어졌다.
- b. 교실이 창이 깨어졌다.

(23b)에서 비분리소유와 마찬가지로 “교실이”에 강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비분리소유와는 달리 “교실이”라는 용어에 절대로 “주어”라는 통사적 기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교실”과 “창”이라는 용어의 순서도 바뀔수가 없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 즉, 이들은 이중 주어구문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가”의 격표시가 반드시 주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을 통사본적인 분석이론이나 관계문법적 접근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우나, 의미론적 기능과 화자의 의도나 그밖의 화용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능문법적 분석방법으로는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즉, 다음과 같이 (23b)의 분석을 비약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23b') 깨어졌다 (교실<sub>Loc.</sub>이) (창<sub>Foc.</sub>)  
Go. Sub.

이러한 분리소유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24) a. 책상의 빛이 아름답다.
- b. 책의 표지가 곱았다.

Shibatani(1977)처럼 소유격 형식에서 주격과과격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다음에서도 덧붙일 수 있다.

- (25) a. 철수의 모자가 있다.
- b. 김판중의 소설이 있다.
- c. 이순신장군의 초상화가 있다.

- (26) a. 철수가 모자가 있다.
- b. 김판중이 소설이 있다.
- c. 이순신장군이 초상화가 있다.

(26)예문은 강조적 표현면에서의 화용론적 의미차이 이외에도 (25)와는 의미론적으로도 일치치가 다른 의미차이가 있으며, 통사본적인 면에서도 그 문장의 주어가 Shibatani(1977)처럼 두번째 명사가 아니라 첫번째 명사로 보아야 한다.

참고, 다음과 같은 관형격 표현은 주격화현상으로

로 설명할 수가 없다.

- (27) a. 죽의 강삭이 차츰 곱히고 있다.
- a\* 죽이 강삭이 차츰 곱히고 있다.
- b. 불후의 명작이 잊혀지고 있다.
- b\* 불후가 명작이 잊혀지고 있다.
- c. 순남의 반지가 없어졌다.
- c\* 순남이 반지가 없어졌다.
- d. 강연의 여인이 찾아왔다.
- d\* “강연이 여인이 찾아왔다.

이들은 앞의 (25) (26)예문에서 보듯이 더 엄격한 차이가 있으며 더욱이 주격화 현행이 일어나지지도 않는다. 반면 비관형격 형태의 다음 예문을 보자.

- (28) a. 그에게 부채가 많다.
- a' 그가 부채가 많다.
- b. 시운에 지하철이 생긴다.
- b' 시운이 지하철이 생긴다.

이들 두 문장들간의 차이는 건립치판이 아닌 통사론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으나 통사본적인 case-marking의 차이와 화용론적인 면에서의 차이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Shibatani(1977)의 관계문법에 입각한 주격과 변형방식에 의한 분석만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쓸데없이 불필요한 제약을 달아야 하는 다리가 나므로므로 부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Dik(1978)의 기능문법적 내두리 및 그 수반언어에서의 의미적 기능과 통사적 기능 그리고 화용론적 기능에 의한 분석방법이 어느정도 설명력 다당성의 있음을 알수 있다.

2. 서술주어 구문

成光秀님(1974 : 224)는 앞에서 분석한 양주어 질상에 대해 제1주어 제2주어로 분석하고, 그 다음과 같은 서술주어가 있음을 주장했다.

- (29) a. 고양이가 새끼에서 어미가 되었다.
- b. 고양이가 새끼가 어미가 되었다.
- c. 고양이(의) 새끼가 어미가 되었다.

(29b)같은 중주어질상은 다음처럼 I.C 분석을 하고 있다.

(29b') 고양이가 새끼가 어미가 되었다.

여기서 “새끼가”는 제1주어이고 “고양이”는 제2주어이나, “어미가”는 이들과 구별하여 서술주어라고 하였다. 그는 다음 예를 들어 이 서술주어와 서술

은 수의적인 변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30) a. 영자가 독감이 걸렸다.
- b. 광호가 국제정세에 밝다.
- c. 울쟁이가 개구리로 된다.
- d. 술이 로로 변했다.
- (31) a. 영자가 독감이 걸렸다.
- b. 광호가 국제정세가 밝다.
- c. 울쟁이가 개구리가 된다.
- d. \*술이 조가 변했다.

(31)을 (30)에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술주어화 변형이 적용되어야 하며 (31d)가 안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술주어화 변형은 수의적이란 것이다. 그러나 (31d)에서도 서술어를 “변했다”가 아니라 “된다”로 바꾸면 가능하다. Shibatani(1977)의 주격화 변형과는 달리 이 서술주어화 변형은 직문법적 태두리 안에서 설명해 보려는 시도로 Dik(1978)의 기능문법적 분석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의미적 기능과 통사적 기능만 고려한 것으로 화용론적 기능을 고려해 놓지 못한 단점이 있다. 즉 국어의 보사는 단순히 통사론적 현상만이 아니라 다분히 화자의 의도나 문맥에 많이 의존하는 화용론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런 통사적 분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 따라서 기능을 중시하는 기능문법적 태두리 안에서 이를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다. 즉 (31a)에서 “영자가”는 “patient”의 의미론적 기능과 “주어”라는 통사론적 기능을 지녔다고 볼수 있으며 앞에서 살핀대로 일반적인 상황으로 specific sentence 라던 주어인 “영자가”에 보다는 일종의 “force”라는(4) 의미론적 기능을 지닌 “독감이”에 강조의 화용론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를 도식으로 표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31a') 걸렸다 (영자가) (독감이)

Pat. Sub.
For. Foc.

한편 {이/가}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는/은}이 출현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다.

- (32) a. 영자는 독감이 걸렸다.

- b. 광호는 국제정세가 밝다.
- c. 울쟁이는 개구리가 된다.

이들은 (31)과는 달리 generic sentence로 볼수 있다. 그러므로 주어인 명사에 Topic 이, 두번째 명사에 Focus 가 온다고 분석할 수 있다.

(32a') 걸렸다 (영자는) (독감이)

Pat. Sub. Top.
For. Foc.

한편 심리동사에 대한 다음의 예를 보자.

- (33) a. 선생님이가 개를 무서워 한다.
- b. 선생님이 개가 무섭다.
- c. 선생님은 개가 무섭다.

Shibatani(1977 : 247)은 (33b)의 “개가”는 주격조사 “가”가 쓰였으나, 주어가 아니라는 예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다. 비록 (33a)처럼 복지어라는 통사론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주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33b)는 성광수님(1974)의 서술주어 형태와 비슷한을 알수 있다. 즉 “개가”는 통사론적으로 목적어는 아니지만 의미론적으로 목표적(goal)의 기능을 지니고 있고 화용론적으로 강조(focus)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를 기능문법적으로 분석하면 대략 다음의 같이 고시해 볼 수 있다.

(33c') 무섭다 (선생님은) (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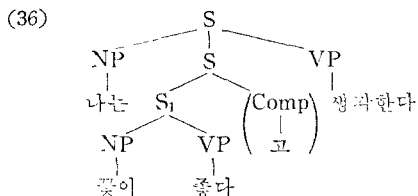
Ag. Sub. Top.
Goal. Foc.

그러나 심리동사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33c)처럼 3인칭 주어의 문장은 어색하고, 1인칭 주어인 다음 예문이 훨씬 자연스럽다.

- (34) a. 나는 갖이 좋다.
- b. 나는 개가 무섭다.

한편 (34)의 예문을 복문으로 설명하려는 설명고이다.(5)

- (35) a. 나는 갖이 좋다고 생각한다.
- b. 나는 개가 무섭다고 생각한다.



(4) Dik(1980 : 53)는 문장을 그 의미로 보아 Action, Position, Process, State 로 분류하여 그에 맞는 의미적 기능을 주고 있다.

i) Action: John(Ag) ran away.  
 ii) Position: John(Po) stayed in the hotel.  
 iii) Process: a. John(Proc) fell down.  
           b. The wind(Fo) opened the door.  
 iv) State: The roses (ϕ) are beautiful.  
 (semantic function: Agent(Ag), Positioner(Po), Processed(Proc) or Force(Fo), Zero(ϕ))

여기서 (iiib)와 같은 구문에서 “Force”라는 의미적 기능을 잊을수 있다.

(5) 윤만근(1980 : 85) Ross 의 上位節(Higher Clause) 참조.

이 경우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이 보문소 “고”의 주된동사 “빙각한다”를 생략하는 것으로 볼수는 없다. (34)예문은 그 자체로만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치런 추상적인 심층구조의 분석에서 변형에 의해 유도되는 과정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즉, 변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존재없는 제약을 많이 달아야 하는데 이런 제약이 우리 인간의 언어능력과, 특히 주어에 대한 언어능력과 일바당한 관련이 있는지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은관근님(1980)은 ergative case<sup>6)</sup>로 분석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34a)에서 “꽃이”는 (33a)처럼 목적어로 볼수 있으며 “나는”이라는 문장의 주어가 생략할 경우, 주어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꽃”이 주어인 동시에 목적어가 된다는 설명이나 “꽃이”를 목적어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어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1인칭 주어로 쓰인 심리동사에 대해서도 비밀인칭 주어로 쓰인 약의 예문 (33)에서처럼 기능문법적 태두리안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볼수 있다.

### 3. 수량사 구문

한편 수량사를 포함하는 다음의 예문을 보자.

- (37) a. 세 아이가 왔다.  
b. 아이가 셋이 왔다.

Shibatani(1977)에 의하면 수량사 이동(7)이라는 변형규칙에 의해 이를 설명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수량사에게도 일종의 강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변형규

(6) 율관근(1980)은 ergative language란 타동사 구문이 오직 수동태형으로 나타나는 언어이므로 수동태나 수동태의 성격을 띤 구문은 ergative하다고 하였다. 주어에는 타동사구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ergative language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은 Ergativity를 지녔다고 주장하고 있다.

- i) 도둑이 잡혔다.  
ii) 땅이 백병이 쫓겼다.  
iii) 내가 딸이 잘 먹혔다.  
iv) 나는 돌이 있다.

즉 주어에는 일어의 같은 수동형은 없고 위의 같은 구문이 수동을 대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어의 성격과 목적어 성격을 점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7) Shibatani(1977)는 Quantifier Floating이란 rule로 다음을 설명하려고 했다.

- i) a. 세 아이가 어제 왔다.  
b. 아이가 셋 왔다.  
ii) a. 내가 그 아이를 어제 보았다.  
b. 내가 아이를 셋 보았다.  
iii) a. 내가 그 아이에게 어제 책을 주었다.  
b. 내가 아이에게 셋 어제 책을 주었다.

즉 주격과 목적격에 대한 rule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Quantifier Movement도 있음을 지적했다.

- iv) a. 세 아이가 어제 왔다.  
b. 아이 셋이 어제 왔다.  
c. 아이가 셋이 어제 왔다.

본 문장에서 문제 삼는것은 (ivc)와 같은 문장이다.

칙을 전면 부정하고 의미론 동사론 및 화용론적 기능에 의한 기능적 분석방법을 택하는 기능문법의 태두리 안에서 분석을 해 볼수 있다. 한편 임흥빈님(1974: 144~145)에서는 이 수량사도 일종의 시술어로 취급하여 “아이가 셋이다”라는 관계절이 내포되어 있는 복문으로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이 복문으로의 설명도 관형격 구문을 모두 심층구조에서 관계절 구문으로 분석하려는 변형문법적 접근으로 앞서서도 누누이 설명했듯이 지나친 변형만능주의에 의한 분석으로 오히려 일반성을 포착하기 보다는 지엽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량사로 강조하는 화용론적 기능으로 분석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볼수 있으며 이를 대략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해 볼수 있다.

(37b')  $\frac{\text{왔다}}{V}$  (아이가)  $\frac{\text{셋이}}{\text{Quat. Foc.}}$   
Ag. Su.

이치런 수량사에 강조를 두는 예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 (38) a. 땅이 백병이 쫓겼다.  
b. 꽃이 두께가 박혔다.  
c. 확성이 돌이 있다.  
d. 값이 백원이 싸다.

## Ⅶ. 목적어 중출현상에 대한 기능문법적 분석

지금까지 주어 중출현상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목적어 중출현상 즉 목적격 조사 “을/를”의 중출현상에 대해서도 여러 기준분석을 검토해 가며 장단점을 논하고 기능문법적 태두리안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관형격 구문**

목적어의 경우에도 주어와 마찬가지로 관형격에서 유도해 낼 수 있는 중출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39) a. 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다.
- b. 내가 철수를 다리를 잡았다.
- c. 내가 귀를 꼬리를 잡았다.

Shibatani(1977 : 243~246)는 주어의 경우에 주격화 변형으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40)과 같은 소유격 형태의 구문에 대격화변형(Accusativization)이 적용되어 유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40) a. 내가 철수의 머리를 때렸다.
- b. 내가 철수의 다리를 잡았다.
- c. 내가 귀의 꼬리를 잡았다.

이런 경우도 주격화변형과 마찬가지로 “철수”라는 소유격주어를 강조한다는 의미변화를 동반하는 대격화변형으로, 이중 목적어 구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격화 변형과는 달리 많은 제약이 있어 비분리소유의 경우에만 국한한다는 것이다.

- (41) a. 나의 머리가 아프다.
- a'. 내가 머리가 아프다.
- b. 이 선생님의 제자가 총명하다.
- b'. 이 선생님이 제자가 총명하다.
- (42) a. 철수가 나의 머리를 때렸다.
- a'. 철수가 나를 머리를 때렸다.
- b. 철수가 이 선생님의 제자를 때렸다.
- b'. \*철수가 이 선생님을 제자를 때렸다.

즉 (41)에서 주격화변형은 분리 및 비분리소유에 제한없이 적용되었으나 (42)에서 대격화변형은 비분리소유의 경우에 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간접목적어에서 직접목적어로 변형되는 대격화변형도 예를 들고 있다.

- (43) a. 내가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 b. 내가 아이를 영어를 가르쳤다.

위 예문에서 목적격화된 (43b)의 “아이들”은 수동형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목적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39)처럼 약간의 의미변화를 동반한 대격화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한 문장의 목적어는 하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 3장에서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문법에 입각한 변형규칙에 의한 설명으로 유도과정에서 많은 제

약과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같은 이유로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중주어 구문의 비분리소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능문법적 태두티안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성광수님(1974 : 226~228)에서도 이런 목적어 중출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Shibatani(1977)와는 달리 동일격 중출이 아니라 중목적어란 개념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 즉 다음 예문은 준이 설명하고 있다.

- (44) a. 영자가 남편을 꼬리를 깨물었다.
- b. 영수가 순희를 목을 꺾었다.
- c. 철수가 책상을 다리를 꼬았다.
- d. 나는 책을 한 권을 샀다.
- e. 아이가 연탄을 귀를 구멍을 뚫었다.
- f. 그가 「목포의 눈물」을 유행가를 노래를 불렀다.

(44a)~(44d)는 이중목적어 구문이고 (44e)~(44f)는 3중목적어 구문으로, 오히려 동일격이 중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문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4)와 같은 구문은 Shibatani(1977)와는 반대로 소유격 형태의 구문에서 대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5)와 같은 구문이 되기 위해 관형화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 (45) a. 영자가 남편의 꼬리를 깨물었다.
- b. 영수가 순희의 목을 꺾었다.
- c. 철수가 책상의 다리를 꼬았다.
- d. 나는 책(의) 한권을 샀다.
- e. 아이가 연탄(의) 귀(의) 구멍을 뚫었다.
- f. 그가 「목포의 눈물」(의) 유행가(의) 노래를 불렀다.

특히 (45c)는 분리소유의 예로 Shibatani(1977)는 대격화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겼었다.

**2. 서술목적어 구문**

한편 이와는 다른 유형으로 다음은 예로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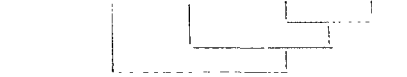
- (46) a. 철수가 영화를 아버지로 삼았다.
- a'. \*철수가 영화의 아내를 삼았다.
- b. 철수가 포도를 술을 만들었다.
- b'. \*철수가 포도의 술을 만들었다.

이는 (42)에서 (43)으로 관형화 변형되는 것과 달리 이중목적어의 관형화가 불가능하다. 이 두 유형의 이중목적어 구문을 구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I.C 분석을 하고 있다.

(44a') 영자가 남편을 코를 깨물었다.



(46a') 철수가 영희를 아내를 삼았다.



주 (44)유형은 주어 중출현상에 대해 제 1주어, 제 2주어로 구분했듯이, 제 1목적어, 제 2목적어로 구별하고, (46)유형은 시술주어로 구별했듯이 시술목적어로 구별한다.

한편 이의 함께, 격에 의한 구별도 결판이므로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47) a. 병태는 영자를 아내로 삼았다.
- b. 병태는 영자를 아내를 삼았다.

즉 시술어 “삼(았)다”는 위격(Agent), 객격(Object), 목표격(Goal)의 격구조자질로 갖고 있어 (47a)구문처럼 쓰이는데 (47b)로 바꾸어 보아 객격은 의무적으로 목적어화되고 목표격은 수의적으로 목적어화 된다는 것이다.<sup>(8)</sup> 즉 이를 대략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

- (47a') 삼았다. (병태) (영자) (아내)
- V Ag. Sub. Ob. Obj. Go.
- (47b') 삼았다. (병태) (영자) (아내)
- V Ag. Sub. Ob. Obj. Go. Obj.

어느 면에서는 기능문법적 분석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의미론적인 격표시와 통사론적인 주어, 목적어 표시에 그칠 것으로 화용론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중목적어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였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어는 회화의 의도나 문맥에 따라 상당히 변화가 심한 화용론적 현상의 언어로, 통사론적인 분석만으로는 충분하다 할 수 없다. 즉 목적격 조사 “을/를”은 통사론적으로 목적어를 나타내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용론적으로는 주격조사 “이/가”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청자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자 하는 강조의 화용론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9)</sup> 그러므로 위의 (47b')과 같은 분석에다 강조의 화용론적 기능을 더 첨가하여 분석하는 것이 이중목적어 구문을 보다 더 잘 분석할 수 있으며 그만큼 더 설명적 타당성과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대략 다음과 같이 표시해 볼 수 있다.

(47b'') 삼았다. (병태는) (영자를) (아내를)

(44)와 같은 강령수님(1974)의 제 1목적어, 제 2목적어 구문도 관형격의 주어화 현상을 분석했을 때와 같이 기능문법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48) a. 영자가 남편을 어디를 깨물었니?
- b. 영자는 남편을 코를 깨물었다.
- (49) a. 영자가 누구를 코를 깨물었나?
- b. 영자는 남편을 코를 깨물었다.

주어의 근항적 구분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항은 이중목적어 구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단지 화용론적 기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를 도식화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48b') 깨물었다. (영자는) (남편을) (코를)
- V Ag. Sub. Top. Ob. Obj. Lo. Obj. Foc.
- (49b') 깨물었다. (영자는) (남편을) (코를)
- V Ag. Sub. Top. Ob. Obj. Foc. Lo. Obj.

### 3. 동사 “하” 구문

표면 구조상으로 위에 언급한 것과는 다른 목적어의 중출현상을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0) a. 철수가 중국어를 공부를 한다.
- b. 직군이 도시를 파괴를 한다.
- c. 처인이 무기정역을 연도를 받았다.
- d. 게릴라들이 무기를 압수를 당했다.
- (51) a. 순자가 초상화를 그림을 그린다.
- b. 신자들은 칠당을 꿈을 본다.
- c. 영희가 탐을 꿈을 본다.
- d. 학생들이 책을 배계를 배었다.

(8) 성광수님(1974)은 객격(Object)와 目標格(Goal)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i) 客格(Object): a. 아이가 파자를 먹는다.  
b. 눈이 바람으로 열렸다.  
ii) 目標格(Goal): a. 영자가 설악산으로 떠났다.  
b. 나는 12시까지 돌아 오겠다.

이 목표격은 Dik(1978)가 말하는 Goal라고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객격(Ob)과 통사론적인 기능인 목적어(Obj)와는 구별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이 격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9) 신원숙(1982: 138)도 비슷한 입장에서 목적격 표지 “를”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내리고 있다. 첫째, /를/은 /-을/, /-는/과 다른 표지이며, 형식이 다른 만큼 전하는 의미도 다르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를”: 전자의 인격에 새로 도입하거나, 대조의 축점을 맞추거나, 화제의 축점을 전하기 위해 “주의집중”이 필요한 곳을 뜻한다.

둘째, /-는/은 “주의집중”이라는 기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의미가 필요한 상황이면 화자는 /-를/을 택하고 있다.

성광수님(1974 : 228~230)은 (50)의 목적어 형태를 위한 “공부, 파괴, 언도, 압수” 등과 같은 명사는 동사성 명사라 하고, (51)의 “그림, 꿈, 꿈, 배개” 등과 같은 명사는 동사에서 전성된 명사들이라 하여 구별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첨중구조의 문관계에서는 동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다”를 주절동사로 처리하여 이같은 구조의 문장은 복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은 대략 다음과 같다.

(50a') 철수가 (철수가 중국어를 공부) 한다.

(50a)의 심층구조를 (50a')로 보고 동일어삭제 변형규칙이 적용되어 종속절의 주어 “철수가”가 생략되고 또 목적어화 변형이 적용되어 (50a)와 같은 표면구조를 일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철수가 공부를 하다”도 똑같은 식으로 복문으로 취급해야 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한편 지경수님(1975)도 (50a)의 “공부를 하다”를 하나의 기술어로 보고 “하다”는 형식동사로 취급하여 의미배응은 없고 단지 통사적인 형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변형으로 도입되는 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임흥빈님(1979 : 105~109)은 비실체성 명사 뒤에 오는 “하다”가 모두 의미론적으로 허칭대라는 데 동의하지 않고 “중국어 공부하다”로 쓰일 때의 “하다”와 그냥 “공부를 하다”로 쓰일 때의 “하다”를 구별하였다. 다음의 예를 보자.

- (52) a. 영희는 영어를 공부를 하였다.
- b. 영희는 그것을 공부를 하였다.
- c. \*영희는 영어를 그것을 하였다.

- (53) a. 영희는 공부를 하였다.
- b. 영희는 그것을 하였다.

(52c)처럼 비실체적 명사인 “공부”는 대명사화 할 수 없으나, 같은 비실체적 명사인 (53)의 “공부”는 대명사되어 (53b)가 되었다. 즉 (53)에서는 “공부”가 복기어이나 (52)의 “공부”는 복기어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또 분리성과 부가성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 (54) a. 그는 공부를 많이 했다.
- b. \*그는 수학을 공부를 많이 했다.

- (55) a. 그는 많은 공부를 했다.
- b. \*그는 수학을 많은 공부를 했다.

(54)처럼 부사의 출현위치가 이중목적어식 구문에

서는 극히 제한되는데 비해, 여타의 타동사 구문의 “하다”는 매우 자연스러우며, 명사앞의 관형요소가 오는 점에 있어서도 (55)처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중목적어식 구문의 “공부를 하다”가 자유롭게 분리될 수 없음을 나타내며, 적어도 이들의 관계가 서로 독립된 성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55b)처럼 관형요소가 부가될 수 없다는 것은 명사적인 성격조차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히려 부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6) a. 철수는 그 아이를 친배를 하였으나 인희는 그 아이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 b. 익사자는 피자를 연구를 하는데 작가는 현재를 그렇게 한다.

여기서 “그렇게”에 기계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도 분명 “친배를”과 “연구를”이다. 즉 무사적 성격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임흥빈님(1979)은 결론적으로 이 이중목적어 구문을 형성했던 “수학을 공부를 하다”의 “공부를 하다”는 비분리 성분으로 “공부하다”에서 “을/를”이 첨가된 현상으로 보았으며 이 “을/를”은 통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添詞나 後置詞와 같이 그 자신의 독자적인 의미 특성을 가진, 비격조사의 어떤 존재라고 가정하였다. 앞에서 기능문법적 분석에 의한 화용론적 기능으로서 강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던 “을/를”과 유사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즉 임흥빈님(1977)은 통사론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간파했으며 일종의 주체화 현상이 아니냐고 제안하고 있으나 앞에서 주어중층 현상에서 살렸듯이 화용론적인 현상으로 화자가 강조를 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설명이 오히려 타당한 것 같다.<sup>10)</sup> 따라서 “철수가 영어를 공부를 한다”와 같은 구문도 기능문법적 태두리안에 끼 분석할 수 있다.

#### 4. 수량사 구문

한편 주어중출현상에서와 같이 수량사가 포함되어 이중목적어 구문을 형성하는 예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7) a. 철수는 논문을 열 편을 썼다.
- b. 삼촌은 집을 열 채를 팔았다.

임흥빈님(1979 : 110~114)은 이를 관형기 형식을 취할 수 있는 여타의 구문과 구별하였다. 즉 “열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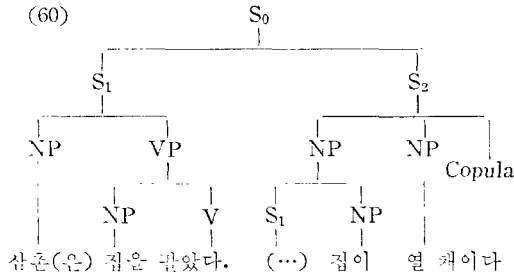
(10) 김. (9) 참조.

의 짐을 팔았다”와 “짐을 열 채를 팔았다”는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짐 열 채가 동시에 매매될 가능성이 많은데 비하여, 후자는 한 채씩 팔아서 열 채에 이르게 되는 표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수량사구를 서술어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복문으로 취급하라는 것이다.

- (58) a. 철수는 논문을 썼다.
- b. 논문이 열 편이다.

- (59) a. 삼촌은 짐을 판았다.
- b. 짐이 열 채이다.

(57a)문장은 (58a), (58b) 두 문장의 결합으로, (57b)문장은 (59a), (59b) 두 문장의 결합으로 보며, 이들의 결합관계를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연류된 것으로 보고 있다.



(60)에서 (57b)에 이르기 위해서는 S<sub>2</sub>이 있는 관계문 S<sub>1</sub>생략, 동일명사구 생략에 의한 표제명사의 생략, Copula 생략 등을 거쳐 S<sub>2</sub>의 보여인 “열 채 (이/가)”를 S<sub>1</sub>의 목적어 뒤에 또 다른 목적어로 인상(Raising)시켜 주는 변형이 요구된다. 이는 각신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어에서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런 복문으로서의 분석은 종래 변형문법 학자들, 특히 생성의미론자들의 추상적 심층구조적 분석으로, 이런 추상적 심층구조와 복잡한 변형규칙이 갖는 심리적 실제 및 인간의 언어 능력과 얼마만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심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어 중출현상과 마찬가지로 수량사에 강조를 받는 화용론적 기능에 의한 분석 방법은 추구해야 할 것이다.

### V. 문제점 및 대안과 화용론적인 면에서의 재조명

지금까지 제 2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주어 및 목적어의 중출현상에 대해 여러 기술편설을 비판해 가면서 Dik(1978)의 기능문법적 태두리 및 그 수정안에서 분석해 가는 것이 더 많은 설명력과 실득적이 있음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런 분석에도 그에 수반하는 여러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 5장에서는 여러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과 수정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 3장과 4장에서 주어 중출현상과 목적어 중출현상이 이중주어 구문이나 이중목적어 구문이라기 보다는 화자가 말할 때 강조를 하기위한 화용론적 기능으로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이 강조구문이 주어나 목적어와 혼동을 일으키는 “이, 가”나 “을/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남게 된다.

- (61) a. 철수가 머리가 아프다.
- b. 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다.

(61)예문에서 “철수머리”라는 복합명사나 “철수의 머리”라는 관형격 구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지 않고, 개개의 명사 “철수”와 “머리”의 의미적 기능을 살펴, 그것에 주어와 목적어라는 통사적 개념이 주어지고, 여기에 강조라는 화용론적 기능이 주어질라는 3단계의 기능에 의한 기능문법적 문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표현에 있어서 (61a)에는 주격조사 “가”가 주어지고 (61b)는 대격조사 “를”이 주어지는 문제는 아직 남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Lakoff(1977 : 248~254)의 Partial Matching 논리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62) a. This car drives easily.
- b. Those dresses sell easily.
- c. These clothes wash easily.

(62)에서 주어로 쓰인 “car”, “dresses”, “clothes”는 그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명사들이다. 주동문도 아닌데 주어로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주어라 할 수 있는 속성중에 primary responsibility가 partial matching이 되기 때문이다.<sup>(11)</sup> 이중주어나 이중목적

(11) Lakoff (1977 : 250)는 Agent-Subject와 Patient-Subject에 대해 다음과 같은 Partial Matching으로 설명하고 있다.  
 i) Someone drives the car easily.  
 ii) The car drives easily.

적어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이치된 partial matching 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63) 나는 공부가 싫다.

싫어하는 주체는 주어인 “나”이지만 실제하는 primary responsibility 는 공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치된 주어나 목적어 중출현상은 주어나 목적어 구문으로써 partial matching 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다음, “이/가”와 “을/를”의 조사가 왜 강조를 나타내는 요소로써 쓰이느냐 하는 문제는 Lakoff (1977)의 Partial Matching Theory 에 해결의 길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 강조의 요소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출현문제가 남게 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64) a. 누가 머리가 아프나?  
b. 철수가 머리가 아프다.

b' 아프다. (철수) (머리)

(65) a. 철수가 어디가 아프나?  
b. 철수가 머리가 아프다.

b'. 아프다. (철수) (머리)

(64b)나 (65b)는 같은 표면구조의 문장이지만, 이에 대한 기능문법적 분석은 (64b')과 (65b')으로 표시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추상적 분석에서 실제 쓰이는 문장 (64b)나 (65b)로 실현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Dik(1980 : 67)는 다음과 같은 Expression Rule 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We now need a mapping from these abstract representations to the form of actual linguistic expressions by means of which they are realized. This mapping will consist of a system of EXPRESSION RULES determining the form and the order in which the constituents will appear, given their status in the underlying predication. In general, the expression rules will account for the following aspects of linguistic structure: (a) the form in which terms are realized,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case marking and adpositions (b) the form in which the predicate is realized,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voice differences, auxiliary elements, agreement, and crossreference; (c) the order of constituents; (d) stress and intonation

patterns.

여기서 위의 4가지 Expression Rule 중 (a) 적표시에 의한 용어 실현문제와 (c) 구성성분의 어순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우선 첫째 작 기능에 따른 적표시에 의한 용어실현 문제에 대해 Dik(1980 : 70)는 다음과 같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EXPRESSION RULES FOR FUNCTION

If the other function of a given term is:

$\left. \begin{array}{l} \text{Subj/Obj/Go} \\ \text{Ag/Po/Fo} \\ \text{Rec} \\ \text{Instr} \end{array} \right\}$ , then prepose to that term:  
 $\left. \begin{array}{l} \phi \\ \text{by} \\ \text{to} \\ \text{with} \end{array} \right\}$

위의 예에는 Topic 이나 Focus 같은 화용론적 기능에 의한 적표시의 예는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앞에서 시사했듯이 Partial Matching 에 의해서 Focus 요소로 “이/가”나 “을/를”을 같은 방식으로 꾸가할 수 있겠다. 두번째 어순문제에 대해 Dik(1980 : 7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ach language has one or more ordering patterns built on the following general schema: (47) P2, P1 (V) S (V) O (V), P3

where P2 and P3 indicate the positions for Theme and Tail constituents respectively; P1 indicates a special clause-initial position, S and O indicate the unmarked “pattern position” for Subj and Obj; and Vs mark possible positions for the predicate.

위의 general schema 는 각 언어에 구애되지 않는 일반성 있는 어순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국어처럼 어순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언어에는 그 실현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점에서 추상적인 분석에서 실현시키는 방법보다는 그 대안으로, 있는 그대로의 구문에서 이를 기능에 의한 해석방법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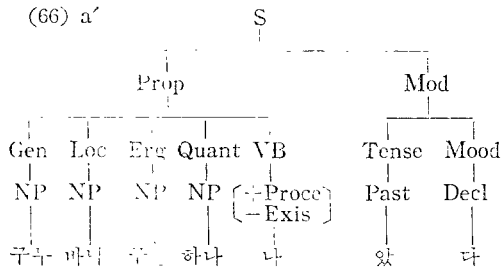
한편, 주어나 목적어가 중출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수의 주어나 목적어가 나타나는 구문을 보자.

(66) a. 구두가 바닥이 구멍이 하나가 났다.

i)과 같은 Agent-Subject 의 문장의 주어의 의미적 특성이 primary responsibility 와 control 과 volition 이 되는데 ii)문장의 Patient Subject 의 의미적 특성은 primary responsibility 이다. 여기서 primary responsibility 가 partial matching 이 이뤄져 ii)같은 문장이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b. 이 말이 걸기가 갖으뜸이다.

박순림(1970)은 기문법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66a')와 같은 실증구조에서 (66a)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어 지하는 변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 문장들이 갖고 있는 의미적 기능과 통사적 기능만 고려한 것이며, 우리의 예처럼 화용론적인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이 아무나 문법적이라 하여도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감이 있다는 직관을 포착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문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세계와의 의미적 연관성(Real World Knowledge)과 지각능력(Perceptual Mechanism)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화용론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66)의 문장들을 해석할 때 주제와 변형에 의한 통사론적 분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perceptual한 면 즉 화용론적인 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66)문장에는 조사 “가”가 지니는 강조라는 화용론적 기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말하자면 화자가 한 문장을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이 너무 많다면 듣는이가 어색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 “이/가”나 “은/를”이 지니고 있는 강조라는 화용론적 기능을 앞에서 시사한 것처럼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여 일종의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으로 보아 문맥과 상황에 의해 cancel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64b)나 (65b)의 같이 화용론적 기능만 다루고 의미적 기능 및 통사적 기능이 같고 실제 문장표현도 같은 문장은 밑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철수가 머리가 아프다.”라는 문장에서 의미적 및 통사적 기능을 그대로 분석하고 화용론적 기능에서 강조의 의미를 Conversational Implicature로 취급하여 문맥과 상황에 따라 cancel될 수 있는 잠재적(potential)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즉 (64)에

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철수가”에서 나온 잠재적 Foc의 기능이 문맥에 그대로 투영되고, “머리가”에서 나온 잠재적 Foc의 기능은 문맥상 모순이 되므로 cancel이 되는 것으로, (65)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면태의 실명이 가능하다. 또 문맥상 화자가 아무 강조의 의미없이 쓸 수 있으므로 두게가 다 cancel될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

Ⅲ. 결 론

지금까지 Dik(1978)의 Functional Grammar에 입각하여 국어의 중주어 및 중목적어 현상을 분석하여 왔다. 기존의 학설을 검토하고 비판하여 기능문법적 분석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주어는 통사론적 현상이 의한 언어라기 보다는 화용론적 현상과 더구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임을 드러내 밝혔다. 이런 화용론적 현상은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능문법적 분석이 타당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화용론적 기능인 강조(Focus)가 주격조사 “이/가”와 목적격조사 “을/를”의 화용론적인 의미를 포착하는 가장 타당성있는 분석으로 주어 및 목적어 중출현상에 있어서는 앞편 중요한 개념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화용론적 기능의 주격조사 “이/가”와 목적격조사 “을/를”의 출현문제에 있어 구체적이고 세세한 분석과 연구가 요구됨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주어 및 목적어 중출현상은 우리의 지각능력(perceptual mechanism)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단지 기능문법적 테두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넓은 인본의 화용론적인 면에서의 연구로 Conversational Implicature에 의한 분석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

참 고 문 헌

成光秀(1974), “국어 主語 및 目的語의 重出現象에 대하여”, 문법연구 제1집, 문법연구회, 광문사.  
 신현숙(1982), “목적격 표지 /-를/의 의미연구”, 언어, 제7권 1호, 한국언어학회.  
 任洪彬(1974), “主格重出論을 찾아서”, 문법연구 제1집, 문법연구회, 광문사.  
 \_\_\_\_\_(1979), “{을/를} 助詞의 意味와 統辭”, 韓國

- 學論叢 제2집, 國民大學, 韓國學研究所.
- 尹萬根(1980), “國語의 重主語는 어떻게 先成되나”, 언어, 제15권 2호, 한국언어학회.
- Dik, S.C.(1978), *Functional Grammar*. North-Holland Linguistic Series 37. Amsterdam: North-Holland.
- \_\_\_\_\_ (1980), “Seventeen sentences: Basic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Functional Grammar.” *Syntax and Semantics* vol.13 E.A. Moravcsik and J.R. Wirth. Academic Press.
- Kim, K.H.(1981), “Functional Approach on the nature of so called Korean double-subject construction.” *U.I.T. Report*, Vol.12, No.2.
- Kuno, S.(197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 case Study from Japenes and English.” *Linguistic Inquiry* Vol.3 ; 269—320.
- Lakoff, G.(1977) “Linguistic Gestalts” C.L.S. Vol.13 ; 236—287.
- Shibatani, M.(1977) “Relational Grammar and Korean Syntax” *Language Research* Vol.12 —2 ; 241—251.
- Yang Dong-Whce(1974) “On the Notion of Topic” Part I. *Journal of Korean Cultural Research Institute*, Vol.23. Ewha Womans University.